

2017년 본당 사목 목표

- 성체성사를 통해 자비의 봉사자가 됩시다. -

서울대교구는 2014년부터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경, 기도, 교회의 가르침, 미사, 사랑의 실천'의 다섯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교구의 사목 방향을 정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네 번째로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란 사목 목표를 정해 '나눔-봉사-친교'의 성체성사의 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해 교구장님은 미사뿐만 아니라 성시간, 성체조배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체험인데, 성체성사야말로 주님의 현존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이기에, 성체성사에 대한 믿음과 영적 체험은 자신의 신앙을 받쳐주는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원동력인 성체성사를 통해 정신대로 개인, 가정, 본당, 사회 안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교구의 사목 지침에 따라 본당에서도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전례, 친교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당에선 2013년에 청담동 성당의 비전과 목표를 정해 사목에 지속적으로 반영 시켜왔습니다. 머릿돌에 새겨진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일을 이루리라"(시편 60, 14)는 사목모토와 청담동 성당의 고유한 장점을 살려서 '사명을 선포하는 교회-선도하는 교회-행복한 교회'란 비전과 목표를 갖고, 바람직한 본당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던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부문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세에 비해 미사참례율과 성시간 참례, 교우들간의 친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2017년도 교구의 사목방향과 맞물려 본당 활성화를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은 우리가 기념한 자비의 회년 정신과도 잘 부합되기 때문에, '서로 밥이 되라'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아픈 현실을 기억하면서 개인중심의 이기적인 행복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나눔과 봉사'의 삶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신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갑시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모두 자비의 봉사자가 되도록 합시다.

1. 성체성사를 생활화 합니다.

- 1) 주일미사 뿐 아니라 평일미사(특히 월요일 새벽미사)도 자주 참례합니다.
- 2) 성시간과 성체조배, 성체신심을 위한 교육, 전례에 적극 참여합니다.
- 3) 적극적인 미사참례와 거룩한 미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공심채, 고해성사, 미사 10분 전 참석, 미사 전 독서복음 봉독, 복음실천, 앞줄부터 앉기, 성가합창, 전례봉사자 교육, 단정한 복장, 미사보, 핸드폰 끄기 등)

2. 자비의 봉사자가 됩시다.

- 1)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봉사, 자선을 생활화합니다.
- 2) 열악한 환경의 해외선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선교 후원회'를 발족합니다.
- 3) 예비신자, 전입자, 어르신들이 환영받는 행복한 본당 분위기를 만들도록 교우들의 친교에 힘씁시다.

2016.11.27 대림 제 1주일
주임신부 주경수(세바스티아노)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물		감사헌금 (11 / 22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15,935,000	영어성경반	100,000	한 세실리아	1,000,000	총 세대수	3,726
		팍 아가다	200,000	신 마리아	30,000	총 납부세대	1,392
주일 봉헌금	13,196,470	허 다윗	100,000	익명	100,000	지난주 납부세대	2
성소 후원금 (7건)	415,000	합계 : 1,530,000원				지난주 납부율(%)	37.4